

“메밀꽃 필 무렵 잊지 못할 추억 만드세요” 평창 효석문화제 ‘달빛(달밤)을 그리다’

풍등을 날리는 시민들



효석문화제 백일장



이효석 생가 마을

“산하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소설 메밀꽃 필 무렵』중에서

메밀은 산에서 나는 밭이란 뜻처럼 강원 평창의 9월은 비탈진 밭에서 피어나는 메밀꽃 향기로 가득하다.

여름철 비가 잦은 탓에 겨울 양식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꿀벌의 왕왕 거리 날갯짓이 메밀꽃을 흔든다.

소설가 이병주는 햇빛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고 했는데 9월 평창의 메밀 향에 물들면 바래지 않는 추억이 된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평창 사람들은 감자를 캐고 배추를 뽑은 56만평 자리에 올해도 메밀을 뿌렸다.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이 출간된 지 88년의 세월 동안 평창은 언제나 빈 밭에 메밀을 뿌리고 메밀로 허기를 채웠다.

메밀은 낮에 보이도 그윽하지만, 보름 달빛에 보아야 운치가 있다.

한가위 보름달 아래에 핀 메밀꽃을 볼 수 있는 효석문화제가 ‘달빛(달밤)을 그리다’를 주제로 9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린다.

효석문화제는 수수한 메밀꽃처럼 담백한 메밀전차처럼 꾸밈이 적다. 꽃길을 따라 걸으며 지난 시절이 낡긴 생채기를 보듬고 허기진 마음을 달랠 수 있다.

장미가 끝나 깨끗한 흥정천 냇가에 앉아 손가락에 봉숭아 꽃물을 들고 섰다리를 건너면 메밀밭이 펼쳐진다.

허생원의 숨은 이야기가 있는 물레방앗간을 지나 산길을 오르면 이효석 문학이 살아있는 문학관에서 잠시 쉴 수도 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를 받으면 재미를 더한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라면 스탬프 랠리를 따라 축제장을 한 바퀴 돌고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문학관 언덕길을 내려오면 이효석 생가 마루에 앉아 이효석의 짧은 생을 추억할 수 있고, 평양 푸른 집은 이효석이 평양에서의 삶을 반추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인근 북카페에서 커피를 즐겼던 가산 이효석 선생을 그리며 커피를 마실 수 있고, 늦여름 더위에 건기가 부담스러우면 전기차가 끄는 강릉 열차를 타면 동네 한 바퀴를 돌 수 있다.

예쁜 메밀꽃밭을 사진에 담고 싶으면 무이예술관 인근의 꽃밭을 추천한다.

무이예술관은 폐교를 활용해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메밀꽃만 그려 온 정연서 화백의 메밀 그림과 유명 작가의 조각품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야간 조명을 설치해 밤에도 메밀꽃을 감상할 수 있다. 가산공원 옆 행사장에서는 60년대 흑백영화 메밀꽃 필 무렵을 느긋하게 감상할 수 있다.

메밀밭을 거닐며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메밀꽃밭 오두막에서 LP판을 돌리는 DJ에게 시연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를 신청하면 좋다.

평창 효석문화제는 2005년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축제로 지정돼 2018년 최우수축제로 선정됐다. 이후 2020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축제로 운영 중이다. ●

2022 평창 효석문화제

달빛(달밤)을 그리다

2022.9.3.(토)~9.12(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효석문화마을 일원